

# RCKOREA

Radio Control KOREA magazine www.rckorea.com

5 Vol. 59  
2007



긴장하라!  
CEN놈이 다가온다!!

Ultimate  
Super Charger Injection Maxx

OK MODEL 'RED BARON'

400 클래스 EP 헬기 성능을 강화하자

영남지역 모형항공기 대회

무겐 오프로드컵 1차전

2007 KAWAHARA CUP KOREA

2007 교쇼 전동 오프로드 챔피언십

2007 타미야 아시아컵 예선 4차전/5차전

HPI CHALLENGE in KOREA 2007

갑산하비 오프로드 챔피언십

손영록

국내 최연소 3D헬기 플라이어

Thunder Tiger Raptor50 Titan

알바트로스

KOREA OPEN F3F FESTIVAL 2007

2007 HIROBO CUP ASIA CEB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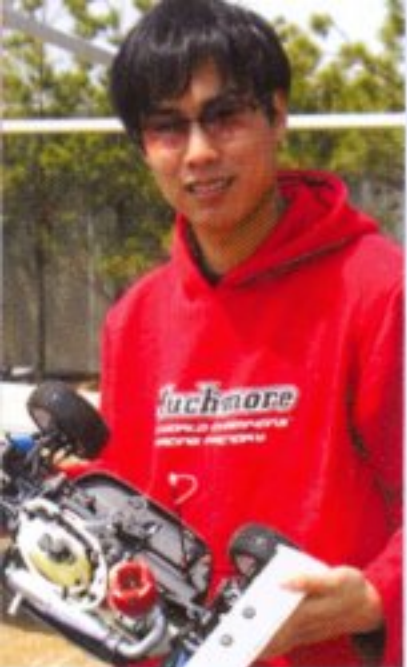
2007 FAI-F3A 세계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www.RCKOREA.com



- KYOSHO 'ULTIMA RB-5' 조립기
- RC 카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7부분 관리법
- 엔진헤드 개조하기
- 초보 입문자를 위한 RC 필수 공구





# 세상을 가질 새로운 버기 Team XRAY XB8 EC

팀 엑스레이의 전동 온로드 팀 드라이버로 3년여 간 활약해온 필자로서는 오프로드란 어린 시절의 향수로 다가온다. 현재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1/8 버기의 박력에 열광하고 있다. 전동 온로드와 전혀 반대편으로 생각되는 1/8 버기는 10년 만의 새로운 도전이다. 그 도전을 친숙한 엑스레이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레이싱을 위한 RC카 셋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하는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큰 버기카에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조립부터 주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버기 클래스에서만큼은 초보자로 입문하게 되는 필자와 함께 이 EC 키트로 1/8레이스를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지? 요즘은 마치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던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돌아가 버렸다.



## 팀 엑스레이, 1/8 클래스 개발에 도전하다

팀 엑스레이는 전동 투어링카로 RC카 레이스 시장에 발을 들여놨다. 이제는 '봄'이 일고 있고 시장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커져 가고 있는 1/8 클래스용 차량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1/8 클래스의 슈퍼스타 야닉 선수와 수석 디자이너 유라이 후디가 함께 긴 개발시간을 가진 XB8키트는 올해 들어 유럽 챔피언의 이름을 딴 EC 키트로 발표하게 되었다. 기존 훌륭한 주행력을 지닌 'TQ'에서부터 각 부 마이너체인지를 하고 성능을 극대화한 EC 키트. 팀 드라이버 키트는 설명서와 박스 등 엑스레이의 호화스러운 부분이 모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 순 없지만, '언제나 그렇듯' 고급스런 박스와 알기 쉬운 설명서, 세팅 팁들이 키트에 모두 담겨 있을 것이다. 우선 온라인([www.teamxray.com](http://www.teamxray.com))으로부터 내려받아 살펴본 설명서는 XB8의 기본 설명서로 두고 첨부설명서가 제공되고 있다. 필자는 여기저기 어떤 파트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조립에 들어갔다. 모든 파트가 투박해 보이는데 코니컬(경사진 속 홀) 속 피스톤이나 오일을 채우는 베벨 디프 등이 낮설게 느껴진다. 하지만 곧 익숙해질 것이다. 머신 커팅이 된 속 스테이나 메인샤프트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예술로 느껴질 만큼 미적 감각이 돋보인다. 차분히 키트를 살펴본 후 필자가 없는 공구를 체크했다. 3mm 알렌 드라이버, 휠 렌치, 턴버클 렌치, 물론 이 중에는 키트에 들어 있는 것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면서(키트에는 턴버클 렌치와 휠 렌치가 포함되어 있다) 주문한 공구들이 진호코리아로부터 도착했고 조립을 시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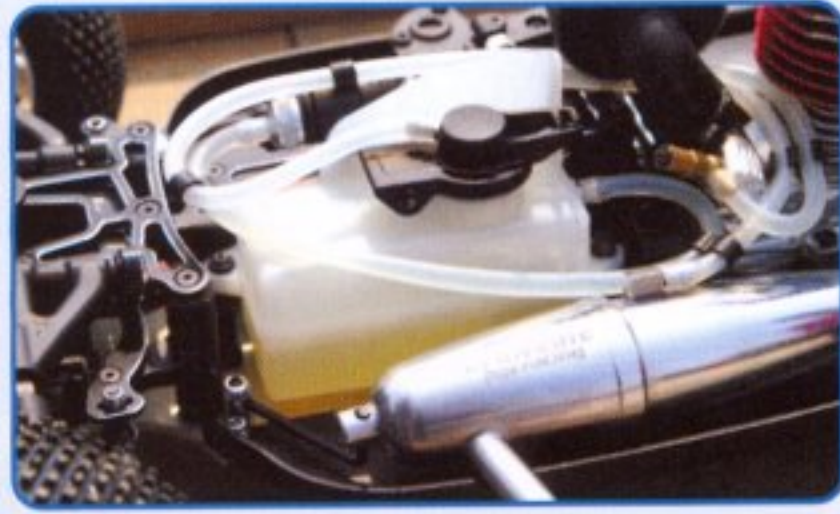


## Chassis

메인세시는 T6 7075 알루미늄 재질로서 튼튼하게 되어 있다. 각 부 살빼기도 성능과 미적 감각을 살리며 각 주요 파트의 CG를 낮추고 있다. 전후 브레이스는 노면 트랙션에 따라 단단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C는 TQ보다 프런트다운 트래블을 더 줄 수 있게끔 그 부위가 경사지게 가공되어 있다. 리어 트랙션을 살리기 위해 TQ보다 엔진이 조금 뒤로 밀려 있어서 전후 유니버설 샤프트의 길이가 같아졌다. 메카박스는 서보 와이어가 깔끔하게 지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7개의 나사를 제거하면 정비 및 청소 시 용이하다. 메카박스 옆에 위치한 트랜스폰더 스테이도 가볍고 간편하게 되어 있다.

## Drive train

XB8EC의 센터 기어는 중심점에서 벗어나 있다. 이 때문에 두 개의 가장 무거운 파트 즉, 엔진과 연료통이 차의 중심으로 좀 더 모을 수 있다. 이 점은 꾸준한 핸들링과 안정성을 보장하게 해준다. 이는 최신 엔진 버그의 새로운 유행이 되고 있다. 엑스레이의 전형인 후디 스프링 스틸을 사용한 유니버설 샤프트는 조립이 필요 없는 공장완성이 되어 있다. 센터 기어를 통해 전후 디프로 구동력을 손실 없이 전달한다. EC 세 개의 실리콘 오일 필드 디프를 가지고 있다. 매뉴얼에서는 7000-7000-7000(프런트, 센터, 리어)로 1/2만큼 채우라고 베이직 셋업을 권하고 있지만 필자는 5-7-3을 2/3을 채우는 것으로 스타팅 셋업을 하시길 권해본다.



## Suspension

TQ로부터의 변화점은 프런트 로어 암이 가공되어 있어 다운드롭(혹은 다운스톱)을 더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핸들링이 더욱 향상되었다. 직경이 커진 속 보디는 더 많은 오일을 담을 수 있어 더욱 안정된 자세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피스톤은 스트레이트 홀의 일반 타입과 코니컬 타입의 경사진 홀을 정 혹은 역방향으로 세트하여 다양한 피스톤의 셋업을 할 수가 있다. 매뉴얼 권장 오일 350을 채우고 주행 테스트를 했는데 동해서킷에서는 약간 무른 감이 있어(트랙션이 높은 오전에는 좋았다) 엑스레이 400으로 스타팅 셋업을 해보기 바란다. 필자는 프런트 1.4 피스톤에 머치모어 400오일을, 리어에는 1.5피스톤에 머치모어 450오일을 채웠다.



속 부츠는 새로 디자인되어 샤프트 아래 까지 감싸던 종래 타입에서 속 보디 아래 까지만 감싸는 심플한 형태로 바뀌었다. 속 부츠 안에는 먼지를 걸러줄 펠트 스페이서가 삽입된다. 이 펠트 스페이서는 조립 시에는 속이 뻑뻑하다고 느끼게 만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 주행에서는 흙이 실린더 내로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막아주는 필수 아이템으로 반드시 착용하길 바란다. 오랜 주행 뒤 거칠어진 속 샤프트는 진호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하는 '메탈 폴리셔'를 이용해서 광을 내주면 부드러운 동작을 다시 찾을 수 있다. 후디 스프링 스틸로 만들어진 튼튼한 턴버클은 믿음직하다.



## Brake

CNC로 컷된 브레이크 디스크는 공기 구멍이 있어서 한 시간 레이스에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브레이킹을 제공한다. 부드러운 브레이크부터 타이트한 코너를 돌아나갈 수 있는 '핸드 브레이크' 까지 다양한 셋업이 가능한 링크지와 브레이크 패드 등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브레이크 캠 로드는 고정된 스토퍼가 메인 스피어 기어에 접촉되지 않도록 세팅한다. 프런트 쪽 캠 로드가 리어보다 짧게 세팅되어야 할 것이다(매뉴얼 상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다).

## 기타

연료탱크는 120cc로 스톤 타입 필터가 내장되어 있다. 세 개의 T6 7075알루미늄 슈가 후디 특유의 컬러를 가진 플라이휠에 고정된다. EC의 에어필터는 2스테이지로 되어 있다. 연료탱크에 부착된 홀더에 클립형식으로 고정될 수 있어 간편하다. 연료탱크는 높게 가드되어 있어 바쁜 피트 스톱에서 주유 시 연료가 메카파트 쪽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 Ryan Lee's Thought

아래는 여러 가지 해프닝 속에 수차례 주행한 뒤 얻은 것들이다. 상식적인 것들일지 모르지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알루미늄, 메탈파트 고정에는 항상 '록타이트' 나사 꼭 재를 바를 것.
- 디프 오일을 채울 때는 샤프트를 조금씩 돌려 공기방울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한다.

이 EC 키트는 필자가 조립해본 중 가장 쉽고 즐기면서 만들 수 있었던 차다. 모든 파트는 꼭 들어맞아서 어떤 가공도 필요치 않았다. 서킷에 주행하기 전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차에 대한 공부를 하고 엑스레이 홈페이지로부터 여러 정보를 모아둔다. 자신의 주행을 도와 줄 수 있는 분들과 동행한다. 이제 겨우겨우 대회에 한 번 참가한 필자는 연습부터 시합이 종료될 때까지 해프닝도 참 많았다. 다음에 있을 주행기사까지 좋은 정보를 많이 수집하여 독자 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주행할 계획이다. 경기장에서나 본지에서나 필자를 보게 되면 힘껏 응원해주길 바란다. **RC**

글: 이정우(팀엑스레이 · 머치모어 팩토리 드라이버)

사진: 이주한(매캐닉, Romanix 웹마스터)